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 중집위원 “총파업 적극 지지, 조합원 모두 나서 달라”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을 비롯한 전직 중앙집행위원 100여명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직 간부들은 25일 광화문 비상행동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왔다”면서 “탄핵투쟁의 마지막 고비를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돌파해 달라. 조합원과 간부를 믿고, 동지와 민중을 믿고 윤석열 파면 총파업투쟁에 힘차게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덧붙여 “87년 6월항쟁이 7,8,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지고 96.97년 총파업이 정권교체를 만들어 냈듯이 사회민주화와 노동자 권리실현은 하나이다”라며 “길을 여는 민주노총으로 불러준 시민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시작으로 사회대개혁을 실현하자”고 외쳤다.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 땅에 사람 사는 세상이 되기를 갈망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건설됐다. 민주노총을 건설했던 것 처럼 다시 피 땀, 눈물을 흘려서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새로운 사회주의 개혁을 이루자”고 말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은 “지금보다 더 암흑한 시절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워냈던 전직 간부들이 우리의 저항을 다 굽어모아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고 모였다”라며 “우리의 힘으로 당당한 힘으로 민주노총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라 했다. 이어 “그 길에 국민 여러분 지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3월 27일 윤석열 내란수괴 파면, 헌법재판소 즉각 선고를 요구하는 총파업 총력투쟁을 계획 중이다. 16개 산업별 노동조합, 16개 지역본부, 지부 지회가 총파업 투쟁에 매진하고 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문
4.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문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1. 개요

- 일시 : 2025년 3월 25일(화) 15시30분
- 장소 : 광화문 비상행동 단식농성장 앞

2. 취지

- 민주노총 30년의 역사는 불의한 정권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음.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총을 파괴하기 위해 집요하게 탄압했음.
- 탄핵이 기각되고 윤석열이 권좌에 복귀한다면 노동자들에게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재앙이 닥쳐올 것임.
-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지켜왔던 전직 중앙집행위원들이 민주노총의 결심과 투쟁을 지지하며, 오는 27일 민주노총이 앞장서고 시민이 함께 하는 총파업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3.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 발언 :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
- 발언 :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현정희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재명 전 경남지역본부장

[붙임] 2.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전직 중앙집행위원들이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민주노총 30년의 역사는 불의한 정권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에게 가장 적대적인 정권이었으며 우리가 헌신과 투쟁으로 건설한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집요하게 탄압했습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고 윤석열이 권좌에 복귀한다면 노동자에게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재앙이 닥쳐올 것입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체제,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노동조합 없는 자본 세상이 윤석열이 꿈꾸는 사회라는 것을 지난 3년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파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87년 6월항쟁이 7,8,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지고 96.97년 총파업이 정권교체를 만들어냈듯이 사회민주화와 노동자 권리실현은 하나입니다.

사회대개혁의 출발은 윤석열의 파면에서 시작됩니다. 탄핵투쟁에서 시민들은 민주노총을 “길을 여는 민주노총!”으로 불러주었습니다.

탄핵투쟁의 마지막 고비를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돌파해 주십시오. 조합원과 간부를 믿고, 동지와 민중을 믿고 윤석열 파면 총파업투쟁에 힘차게 나서주십시오.

윤석열 파면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민주노총을 지켜왔던 전직 중앙집행위원들이 민주노총의 결심과 투쟁을 지지하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5일

민주노총 전직 중앙집행위원 일동

[붙임] 3.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문

민주노총은 이 땅에 사람 사는 세상이 되기를 갈망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건설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건설 시기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 조합원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이 땅 민주주의는 지켜왔다고 저희들은 선포합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국정농단이 이루어졌을 때 퇴진 마당을 열어서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그 이후에 생각지도 못한 윤석열 같은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금 국민이 매우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모였습니다. 우리가 민주노총을 건설했던 것 처럼 다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새로운 사회주의 개혁을 이루어서 민주노총이 세상을 바꾸기를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하나가 돼서 기필코 우리의 투쟁의 승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4.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문

여기에 오늘 모인 민주노총의 전직 중집 동지들은 그야말로 지금보다 더 엄혹한 시절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워냈던 산전수전 다 겪었던 우리 동지들이'아 이것 봐라 이대로 가선 안 되겠구나' 이제 우리의 저항을 다 굽어모아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려고 모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이 나오는 날 그 뻔뻔한 얼굴로 손을 흔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를 감옥에 가둘 때 또 독재 정권과 싸울 때 우리는 늘 수괴라는 이름으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괴는 아무나 수괴 할 수 없어요. 같은 공범으로 불렸던 수많은 동지들이 하나 둘 전부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외상값까지 다 치르고 나와야 진짜 수괴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재판 받고 있고 감옥에 있는데 뻔뻔하게 나오면서 손을 흔드는 그 진짜 가증스러운 모습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작심하면 세상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투쟁하는 조직의 이름으로 힘차게 퇴진 투쟁에 파면 투쟁에 구속 투쟁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민주노총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과 손을 잡고 있는 민중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힘을 전국에서 이제 서울로 중앙으로 결집해서 현재가 어떤 판결을 내더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언제 법관 조무라기들의 손끝에 말끝에서 결정 받은 적 있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당당한 힘으로 민주노총을 지켜내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진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 국민 여러분 지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힘차게 싸우겠습니다.